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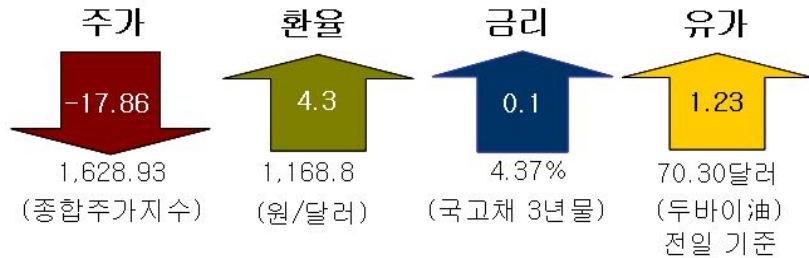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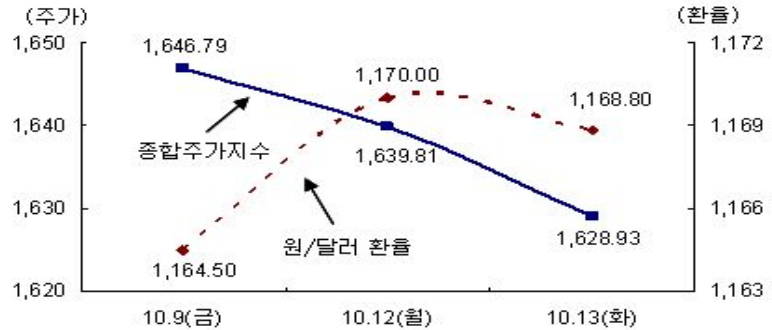
# 經濟週評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9~10.1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최근 CD 금리 급등과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금융경제실   : 현 석 원 연구 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조 호 정 연구 원 (3669-4047, chjss@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최근 CD금리 급등과 시사점

(최근 금리 동향) 2009년에 들어 기준금리가 8개월 연속 동결함에도 불구하고, CD금리는 최근까지 급등세를 나타냈다. CD금리는 9월 9일 2.57%에서 1월 1일 현재 2.81%로 0.24%p 상승하였다. 한편 한국의 금리는 주요국과 대비하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OECD 주요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를 비교했을 때,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최저치 대비 2009년 8월 현재 1.02%p 상승하며 미국 다음으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3개월물 단기금리를 살펴볼 경우에는 8월에 들어 금리가 상승한 나라는 호주와 한국에 그친다.

(CD금리 급등의 배경) 금리 급등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CD금리의 주요 매수처인 자산운용사의 MMF 수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기준금리 연내 인상 가능성 때문이다. 또한 장단기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CD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CD금리가 시장금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일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리 급등에 따르는 문제점) **가계 부문의 경우** 가계 신용이 확대 추세에 있어 이자 비용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가계신용은 2009년 6월말 697.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도 6월 0.59%까지 하락한 이후, 7월 0.63%, 8월 0.67%까지 상승했다. **기업 부문의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하락해 투자 여력 축소에 이어질 것이다. 제조업의 2009년 상반기 차입금평균이자율은 전년동기대비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감소로 금융비용부담률은 오히려 0.4%p 증가했다. 또한 금리 상승은 기업의 이자비용을 증가시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만을 겨우 감당하는 한계기업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자보상비율 0%미만의 기업은 2008년 상반기 20.7%에서 2009년 상반기 28.0%로 7.3%p 증가했다. **금융기관 측면에서 보면**, 시중금리의 상승은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증가시킨다.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을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2008년 12월말 1.41%에서 2009년 6월말 1.90%로 상승했으며 가계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0.54%에서 0.64%로 상승했다. **환율 측면에서 보면**, 주요국간의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경우, 외국인 채권 수요 확대에 따라 달러 유입을 증가시켜 환율 하락을 가속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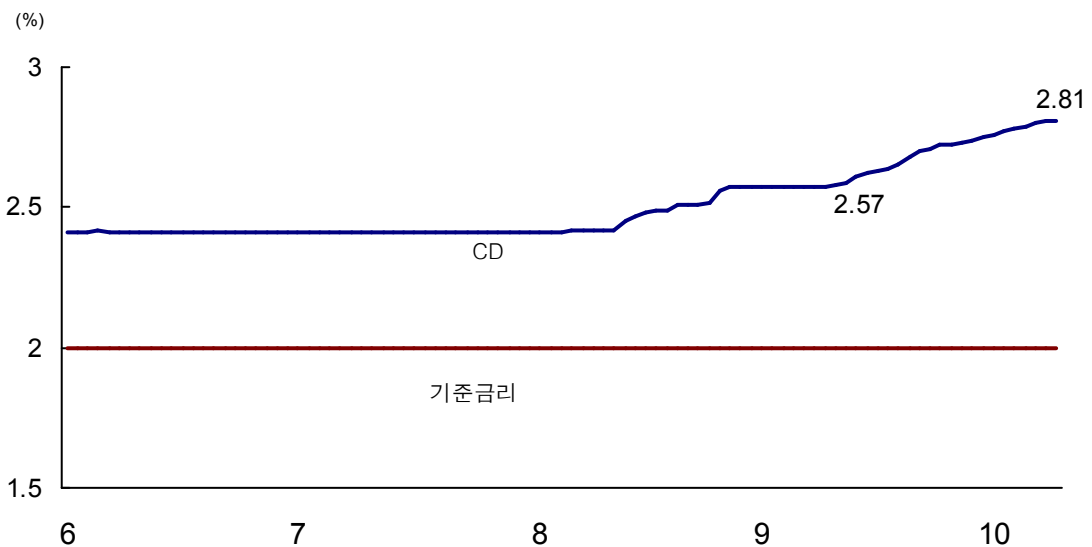
(과제) **향후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첫째**,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제금리 공조를 고려하여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영 부실과 투자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너무 빠르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셋째**, 가계 부채 조정 프로그램 및 부채 만기구조 장기화, 원리금 거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가계 부채 부담 증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CD에만 연동하는 변동금리 결정 구조를 주요금리의 바스켓에 의한 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금리 체계의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

## 1. 최근 CD금리 급등

○ 2009년에 들어 기준금리가 8개월 연속 동결함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CD 금리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냄

- 한국은행은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2009년 2월 12일 기준금리를 2%로 인하한 후 10월까지 동 수준을 유지하며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
- CD금리는 연초 3.93% 연중 최고점을 형성하였으나, 2월말 2.4%대로 하락한 후 최근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10월 12일 현재 2.81%까지 상승
  - 9월 9일 2.57%이던 CD 금리는 최근 한 달간 0.24%p 급등
- 한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6월 초까지 3%대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경기 호전 가능성으로 7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한 후 최근 4.4%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10월 12일 현재 4.39% 기록

< 기준금리와 CD 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한편 한국의 금리는 주요국 대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OECD 주요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를 비교하면, 한국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저치 대비 2009년 8월 현재 1.02%p 상승하며 미국 다음으로 빠른 상승세를 나타냄
  - 리먼사태 이전 4%대의 금리 수준이었던 영국과 독일은 최저치대비 2009년 8월 각각 0.46%p와 0.29%p 상승
- 또한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와 비교할 경우, 미국 97.2%, 영국 81.1%, 독일 80.9%, 일본 88.5%, 한국 90.8% 수준으로 회복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 단기금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8월에 들어 OECD 주요국 중 금리가 상승한 나라는 호주와 한국에 한함
  - OECD가 발표하는 3개월물 단기금리의 경우, 한국은 7월 2.41%에서 8월 2.48%로 상승하였으나,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여전히 하락

< 주요국 국고채 10년물 금리 추이 >

(%, %p)

구분	2008년 8월	리먼사태 (2008. 9. 15)	리먼사태이후 최저치	2009년 8월
미국	3.89	3.69	2.42('08.12)	3.59 (+1.17)
영국	4.73	4.57	3.25('09.3)	3.71 (+0.46)
독일	4.2	4.09	3.02('09.3)	3.31 (+0.29)
일본	1.43	1.48	1.21('08.12)	1.31 (+0.1)
한국	5.91	5.99	4.42('09.1)	5.44 (+1.02)

자료 : OECD.

## 2. 금리 급등의 배경

### ○ 주요 매수처인 MMF 수신 감소의 영향으로 상승세

- 자산운용사의 MMF 수신을 살펴보면, 2009년 8월 6.4조 원, 9월 16.0조 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CD에 대한 매수 감소로 이어짐
- MMF 잔고는 7월 2.5조 원의 감소세에서 8월, 9월 감소 규모가 크게 급증

< MMF 수신과 CD 금리 추이 >

	2009년 4월말	2009년 5월말	2009년 6월말	2009년 7월말	2009년 8월말	2009년 9월말
MMF 수신 증감액(억 원)	13,298	-31,102	-126,772	-24,657	-64,669	-160,356
CD 금리(기말, %)	2.41	2.41	2.41	2.41	2.57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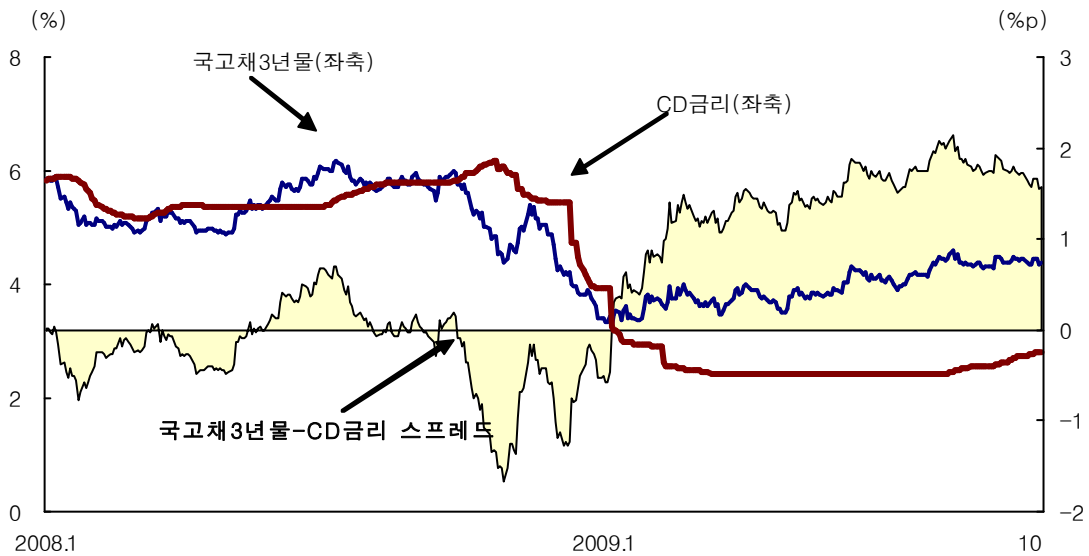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대두

- 자산가격 상승에 의해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유동성 회수에 대비해 CD 발행을 늘리게 되어 금리가 상승될 수 있는 심리적 부분이 선반영
- 한국은행은 지난 9월 금통위에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09년 내에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짐
- 한편 호주가 자산가격 상승 위협에 대비, 10월 6일 3.0%에서 3.25%로 금리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 대비 소폭 하락한 한국의 경우에도 자산가격이 재상승할 경우 금리 인상 필요성 상존
- 또한 경제성장률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4분기 -4.2%에서 2/4분기 -2.2%로 감소폭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금리 상승 기대감이 증대

-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 96.7로 전월대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2009년 8월 9.0%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
- 또한 국고채 3년물과 CD와의 스프레드는 10월 12일 현재 1.58%p로 장단기 금리가 확대되어 있어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CD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CD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1%p이하로 안정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2%p에 가깝게 확대

< 국고채 3년-CD금리 스프레드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제도적 측면에서는 최근 CD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금리 상황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일부 요인으로 지적<sup>1)</sup>

- CD거래액이 채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CD 거래 부재 속에서도 CD 금리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됨
- 최근 CD금리는 CD 거래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0.01%p 상승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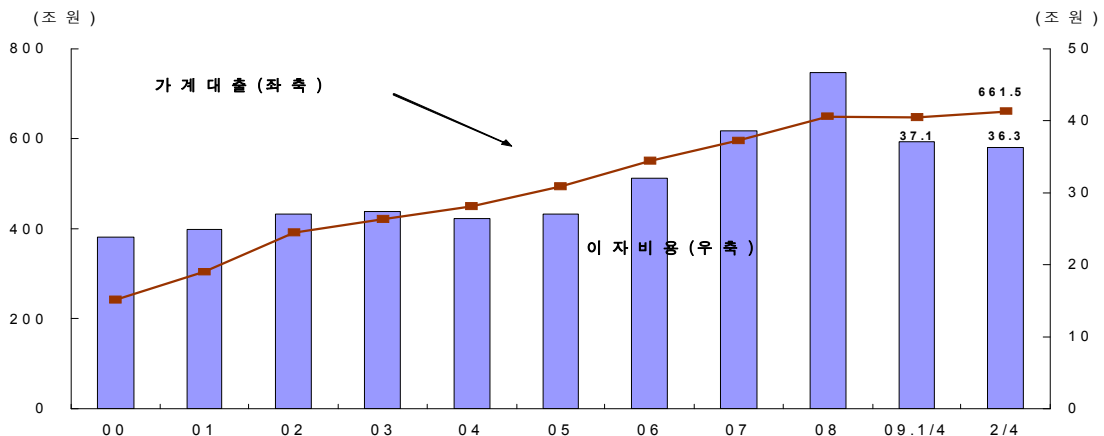
1) 금융권에서는 CD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증권사밖에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 의존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 3. 금리 급등에 따르는 문제점

#### ○ (가계부문) 가계신용이 확대 추세에 있어 이자 비용 부담이 우려

- 경기 침체와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2009년 1/4분기 소폭 감소하였던 가계신용이 다시 확대됨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 6월말 우리나라 전체 가계신용(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은 697.7조 원이고 이중 가계대출은 661.5조 원에 달함
  -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254.4조 원으로 전년말대비 14.7조원 급증하였는데, 2009년 1/4분기 전기대비 7.6조 원, 2/4분기 7.7조원 증가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계 이자 부담은 시장금리 하락에 의해 이자비용은 2009년 1/4분기 37.1조 원에서 36.3조 원으로 감소했으나,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
  -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금리가 1%p 오를 경우, 연간으로 이자 부담은 1.9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이와 관련, 가계대출 연체율도 2008년말 0.60%에서 2009년 2월 0.89%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6월말 0.59%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7월 0.63%, 8월 0.67%로 상승세로 전환

< 가계대출 및 이자비용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 이자비용은 가계대출 잔액에 예금은행 대출평균 금리를 곱해 추정한 수치임. 예를 들면, 2009년 2/4분기는 2/4분기말 대출 잔액에 분기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를 곱한 수치임.



○ (기업 측면)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이는 투자 여력 축소로 이어질 것임

- 금리하락과 차입금 감축으로 하락하였던 기업의 금융비용이 2008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임
-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 이후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 금융비용부담률이 상승
- 2009년에도 하반기 시장금리 상승으로 차입금평균이자율이 더 높아지고, 기업의 매출액이 소폭 감소한다면 금융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제조업체의 금융비용부담률 추이 >

(%)

구 분	'03	'04	'05	'06	'07	'08	'08	'09
							상반기	상반기
금융비용부담률 (금융비용/매출액)	1.87	1.31	1.16	1.21	1.35	1.42	1.0	1.4
차입금평균이자율 (이자비용/(회사채+차입금))	6.82	5.93	5.98	6.27	6.35	6.50	6.00	5.90
매출액증가율	6.12	17.10	5.87	6.26	9.32	20.43	22.4	-4.8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 1) 2007년 이후 측정 방식 변경.

2) 기업경영분석 연말 자료와 반기 자료의 조사 기업체수는 차이.

- 기업 대출의 경우,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연체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존재
- 중소기업의 경우, 8월말 2.18%에서 9월말 현재 1.72%로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대기업은 같은 기간 0.77%에서 0.81%로 상승세를 보임
- 전체적으로 보면, 원화 기업대출 연체율은 2009년 8월말 1.88%까지 상승한 이후, 9월말 현재 1.56%로 하락했으나 이자 부담 상승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원화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

(%)

구 분	'08. 12말	'09. 1말	'09. 2말	'09. 3말	'09. 4말	'09. 5말	'09. 6말	'09. 7말	'09. 8말	'09. 9말
대기업	0.34	0.59	0.62	0.70	0.66	0.85	0.82	0.80	0.77	0.81
중소기업	1.7	2.37	2.67	2.33	2.59	2.57	1.86	2.10	2.18	1.72
기업 전체	1.46	2.05	2.31	2.04	2.26	2.27	1.69	1.88	1.94	1.56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매출이 더 심하게 위축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08년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차입금평균이자율은 7.02%로 대기업의 5.92%보다 1.1%p 더 높고, 금융비용부담률도 2.07%로 대기업보다 1.07%p 높음
- 또한 한국은행 대출형태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2009년 2/4분기 47에서 3/4분기 31로 크게 떨어졌으나 대기업 또는 가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 추이 >

구 분	'08. 1/4	'08. 2/4	'08. 3/4	'08. 4/4	'09. 1/4	'09. 2/4	'09. 3/4	'09. 4/4(E)
대기업	9	0	9	28	19	16	9	9
중소기업	38	34	47	56	47	41	31	31
가계	13	13	22	25	25	25	16	25

자료 : 한국은행, 「3/4분기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09년 10월.

주 : 신용위험지수가 높을수록 대출대상에 대한 신용위험이 높은 것을 의미.

- 금리 상승은 기업의 이자비용을 증가시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만을 겨우 감당하는 수준의 한계기업의 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음
- 2009년 2/4분기 제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 감소와 이자비용 증가로 전년동기의 1,005.8%에서 526.9%로 크게 하락
- 구간별 업체수 분포도 영업이익 적자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 0% 미만 업체수 비중이 2008년 상반기 20.7%에서 2009년 상반기 28.0%로 7.3%p 증가

< 이자보상비율 구간별 업체수 비중 >

(%)

구 분	0%미만	100%미만	100~300%	300%초과	무차입기업
2005.상반기	21.8	29.4	15.6	47.2	7.8
2006.상반기	25.2	32.9	15.0	52.1	8.2
2007.상반기	27.2	34.6	13.4	52.0	8.2
2008.상반기	20.7	29.0	16.6	54.5	7.4
2009.상반기	28.0	37.2	14.7	48.1	6.8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해당 년도 2/4분기 자료.

주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매출액영업이익률÷금융비용부담률.

- 금리가 상승하여 기업의 금융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경기회복에 필수적인 기업의 투자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로 이자비용 부담 증가는 기업의 대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임

○ (금융기관 측면) 금리 상승으로 가계, 기업 등의 부실이 현재화되면 금융기관의 손실로 나타나게 될 것임

- 시장 금리의 상승은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로 인해 대출 연체율과 부도율 등이 상승하여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현재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기업대출의 경우, 2008년 12월말 1.41%에서 2009년 6월말 1.90%로 상승
- 가계의 경우에도, 2008년 12월말 0.54%에서 2009년 6월말 0.64%로 부실채권비율이 상승

- 또한 기준금리 인상은 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을 단기적으로 증가시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 존재
- 다만, 경기 회복시에 자금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확대
  - CD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은행들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은행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 >

(%)

구 분	07말	08.3말	08.6말	08.9말	08.12말	09.3말	09.6말
기업여신	0.80	0.88	0.78	0.93	1.41	1.82	1.90
(중소기업)	0.99	1.13	1.06	1.34	1.93	2.46	2.49
가계여신	0.54	0.58	0.50	0.53	0.54	0.68	0.64
(주택담보)	0.44	0.46	0.38	0.40	0.42	0.51	0.48

자료 : 금융감독원.

- (원/달러 환율 하락 가속) 주요국간의 금리차이가 확대될 경우, 외국인 채권 수요 확대로 달러 유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준 금리의 선제적 상승으로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요인이 증가하여 국내 순유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
    - 지난해 10월 이후 전세계 저금리 기조에 따라 2009년 9월 현재 주요국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크게 줄어들게 됨
    - 미국과는 3.25%p에서 1.75%p로, 일본 4.75%p에서 1.90%p로 내외금리차가 축소
  - 선진국과의 금리차 확대는 금리차익 기회가 존재함으로써 금리 상승으로 원/달러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음

- 국내 외국인보유 상장채권 잔액의 경우 2008년 6월말 54조 4,112억 원에서 2008년 12월말 37조 4,577억 원까지 감소
- 2009년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8월말 현재 45조 4,188억 원을 기록
- 향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채권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달러의 추가 유입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외국인 보유 상장채권 투자동향 >

	'08.12말	'09.1말	'09.2말	'09.3말	'09.4말	'09.5말	'09.6말	'09.7말	'09.8말
상장채권 (조원)	37.4	37.0	37.7	36.0	35.3	36.5	41.1	43.8	45.4

자료 : 금융감독원.

#### 4. 대응 과제

- 향후 신중한 기준금리 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유동성 흡수 방지, 가계의 부채 조정 프로그램 참여, 변동금리 결정 방식 재고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
  - 첫째,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 금리인상은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 경기도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인 점과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 중장기목표 이하에 있는 점에서도, 금리 인상은 내년 이후 가능할 것임
    - 해외 주요국 금리 인상 시기를 감안하여 내외금리 차이의 확대를 방지함으로써 달러 유입을 조절할 필요성도 상존
  - 둘째, 정부는 시장 금리 상승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실과 투자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너무 빠른 유동성 흡수 등을 경계해야 할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원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재무 구조가 일시적으로 압박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셋째, 가계 부채 조정 프로그램 및 부채 만기구조 장기화 지원 등을 통해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의한 소비 위축을 방지해야 할 것임
  - 가계 파산에 대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 조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가계부채 만기구조를 보다 장기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가계에 대해 금리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도록 정부는 원리금 거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변동 금리 결정 구조를 주요 금리의 바스켓에 의한 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금리 체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함
  - 현재 변동금리 기준을 CD에 연동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의 금리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주요 금리 바스켓 방식의 결정 구조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현석원 연구위원(3669-4024, kyotohyun@hri.co.kr)

조호정 연구원(3669-4047, chjss@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미국	2.7	2.1	0.4	-0.7	1.5	-2.7	-5.4	-6.4	-0.7	-2.6
EU	3.0	2.7	0.7	0.7	-0.3	-0.3	-1.8	-2.5	-0.1	-4.8
일본	2.0	2.3	-0.7	4.0	-4.3	-5.1	-12.8	-12.4	2.3	-6.0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7.9	7.5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2.2	-3.0

주 1) : 2008년, 2009년 2/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7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 말	2009년						
		3월말	6월말	9월말	10월 6일	10월 1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2.66	3.54	3.30	3.26	3.38	0.12%p
	엔/달러	90.80	98.98	96.33	89.91	88.76	89.75	0.99¥
	달러/유로	1.3992	1.3244	1.4039	1.4646	1.4718	1.4781	0.0063\$
	다우존스지수	8,776	7,609	8,447	9,712	9,731	9,886	155p
	닛케이지수	8,860	8,110	9,958	10,133	9,692	10,016	32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3.94	4.16	4.39	4.44	4.37	-0.07%p
	원/달러	1,259.5	1,383.5	1,273.9	1,178.1	1,170.3	1,168.8	-1.5원
	코스피지수	1,124.5	1,206.3	1,390.1	1,673.1	1,598.4	1,628.9	30.5p

주 : 10월 13일 해외 지표는 전일(10월 12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 말	2009년						
		3월말	6월말	9월말	10월 6일	10월 1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49.65	69.08	70.28	71.08	72.90	1.82\$
	Dubai	36.45	46.80	71.85	65.33	68.48	70.30	1.82\$
CRB선물지수	229.54	220.40	249.96	259.39	259.47	267.14	7.6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